



뉴스의 인물

신설된 식품의약품안전청

朴 鍾 世 청장

“사전관리 강화...양질의 식생활 실현”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취임한 박종세청장은 “식품의 위해요인을 발본색원하고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청장은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검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실
일자 : 5월 12일(화) 오후 1시30분

■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리며, 월간 「과학과 기술」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청장으로 취임하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되어 개인적인 기쁨보

다 우선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 전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급식 확대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증금속, 농약 등으로 인한 식품의 오염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식품에 대한 주변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의 위해요인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대청장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그간 행정관료들이 청장후보로 거론되어 오기도 했는데, 전문가인 박청장님의 발탁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지요?

“전문성 바탕 신뢰행정 구축”

행정관료 대신에 전문가인 제가 임명된 것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만큼은 행정적 논리보다는 기술적 전문성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

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정부의 조직기구가 축소되는 가운데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설된 것은 정부의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보여지는데, 청장님의 향후 운영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IMF구제금융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WTO체제하의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수입물량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국가간 기준·규격의 조화요구가 증대되고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유전자재조합 식품·의약품 등 신물질의 발명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관리영역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의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행정편의적 규제행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하며, 문제발생에 따른 사후관리에서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어 제반시책을 추진하

고, 국제동향을 따라가는 행정에서 국제수준과 함께 가는 선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규제대상산업이라는 기존의 관련업계 관리방식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나 연구인력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직원 7백76명중 연구원 2백68명

식·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나 연구인력은 현시점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업무 개발 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로는 GC/ MS 등 6백67세트, 총 시험장비는 3천1백세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청 직원 7백76명중 연구직원은 총 2백68명으로 박사 1백7명(40%), 석사 1백55명(58%), 학사 6명(2%)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청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첨단시험장비를 확충하고 우수한 연구인력도 꾸준히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식품과 의약품의 통상문제도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까?

수입 신고때 구비서류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불필요한 통상마찰이나 시장접근 등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꾸준히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수입식품검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그동안의 검사이력을 근거로 위생상 문제가 되는 식품을 중점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사기관간을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수입식품 검사업무전산망을 금년 4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시 구비서류의 간소화와 검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외국공인검사기관을 포함한 인정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인력의 단축효과로 보다 내실있는 수입식품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현재 식품관련 국제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식품과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개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통상마찰이 발

생되지 않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도 인간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국민건강권의 확보를 위한 규제행정의 대상으로만 인식된 나머지 그간 대외통상 현안에 대해 다소 경직되게 대처했으며,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WTO의 출범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선진국들의 통상압력,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 등 대외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의약품의 경우 외국과 상이한 국내 허가관리제도에 대해 수시로 통상현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내 의약품관리규정의 선진화·국제화를 도모함으로써 통상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98년 5월부터는 통상현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회의(Working Group)를 구성 운영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통상현안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벤 존슨의 약물복용사실을 증명해 내셨고, 히로뽕 복용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휴대용 진단시약을 개발해 특허를 받으시는 등 독성학자로서 유명하신데 현재 연구중이신 과제가 있으신지요?

국제독성협력 프로그램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체조사·연구사업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응용가능한 과제중심으로 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WTO체제하에서의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향상을 위한 특정연구사업으로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과 선도기술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성연구소장 시절에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국제화를 위한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약효 및 독성시험지원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해성 물질의 영향을 기존의 정성적 표현방법으로부터 벗어나 정량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위해도평가 연구를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UNDP(UN개발계획)와의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식품중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美 CIIT(산업화학독성연구소) 및 美 FDA와의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국제간 독성연구의 협력 및 정보제공에 따른 '국제독성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㉔

송해영(본지 객원기자)